

KC&A, EA 시장정리에서 가격정리로!

가격정상화 위해 10월 100원 인상 ... 정상가격인 900-950원 목표로

6월 이후 정상가보다 250원이나 인하됐던 EA(Ethyl Acetate) 가격이 11월에는 완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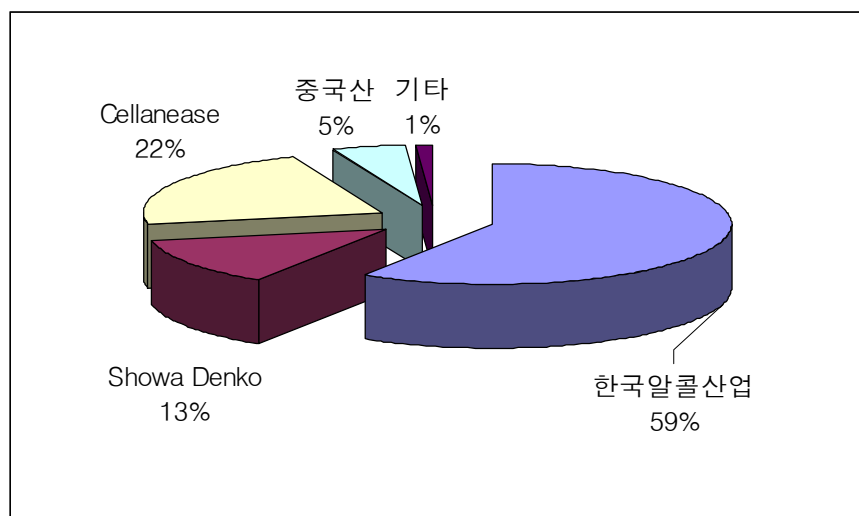
국내 유일의 공급기업인 KC&A는 “시장정리를 위해 인하했던 EA 가격을 11월까지 완전 정상화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KC&A 관계자는 “EA는 8월25일부터 단계적으로 가격정상화에 돌입해 8월25일 경인지역 도착도 가격 기준 kg당 760-750원으로 이전가격보다 100원 인상했고, 9월15일 2단계로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국내에 공급되고 있는 Celanese 및 Showa Denko 제품의 오퍼시기가 월초인 점을 감안해 인상시기를 10월1일로 연기해 현재 kg당 860-850원에 거래되고 있다”고 밝혔다.

또 ‘가격인상폭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6월부터 KC&A가 시장정리 차원에서 가격을 인하했다는 것을 수요기업들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.

아울러 가격인상은 공급기업의 Loss 부분을 없애는 것으로 가격인상보다는 정상가격으로 회복시키고 있다는 표현이 옹호며, 11월은 정상가로 평가되는 kg당 900-950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.

EA 시장점유율(2002)



KC&A와 SK 공급계약의 향방에 대해 SK 관계자는 “공급계약은 10월 둘째주에 이루어질 것이며, 10월2일 현재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주말인 관계로 잠시 미뤄진 것 뿐”이라고 밝혔다.

Celanese 공급제품은 OCI상사, 로지트, 한화에서 취급하고 있으며, Showa Denko 제품은 삼영무역에서 공급하고 있다. <김동민 조사연구원>

<Chemical Journal 2003/10/08>